



교육신문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발행하는
교육 전문지입니다

이달의 지면

- 02 특집 : 2019년 KU 예비교사 엑스포 I
- 03 특집 : 2019년 KU 예비교사 엑스포 II
- 04 사범대학/교육대학원 소식
- 05 교육과 이슈/교육단신
- 06 교육과 학문/교육현장 노트
- 07 교육과 공동체
- 08 문화 탐방

학사 일정

1월

- 1(수) 신정(공휴일)
- 6(월)~8(수) 석사학위 청구논문 원제본 제출(중앙도서관)
- 6(월)~8(수) 학위논문 제출 확인증 접수(행정실)
- 24(금) 설날(공휴일)

2월

- 1(토)~25(화) 학적변동(휴학·복학·재입학) 기간
- 18(화) 2020학년도 전기 입학식
- 20(목)~24(월) 2020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 20(목)~26(수) 2020학년도 1학기 등록
- 25(화) 2019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 25(화) 학적변동(휴학·복학·재입학) 기간 만료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독회원 등록

- 전 화 02-3290-1690
- 이메일 edunews@korea.ac.kr

- 발행인 정태규
- 주 간 박종훈
- 간 사 문장원
- 발행처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창 간 1971년 5월 10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교육신문

2020년 1월 5일(일)

The Korea University Education Monthly

제463호(월간)

■ 신년사

창의·사람·화합 중심의 고대를 위하여



정 진 택

고려대학교 총장

학교 발전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고대 가족 여러분과 고려대학교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경자(庚子)년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인사를 올립니다. 올 한해도 건강한 가운데 보람과 행복이 가득한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기해(己亥)년은 큰 변화와 도전의 한 해였습니다. 글로벌 리더십의 불안과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대내외 경제 상황이 크게 어려워졌으며 또 국내적으로는 곳곳에서 어지러운 정쟁과 이념분쟁이 이어지면서 서로 갈라지고 갈등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대학들은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교육 방향과 입시제도 등을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으며 재정난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난관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는 나름대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고 또한 더 큰 성장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세계 83위로 올라선 사실을 우선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3년의 145위에서 6년 연속으로 상승하여 62계단을 뛰어넘었으며, 국내 종합 사립 대학 중에서는 5년 연속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고 순탄치 않지만 세계 50위권 내의 '글로벌 초일류'로 진입하기 위한 또 하나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고려대학교는 지난해 국내대학 최초로 인공지능 대학원을 설치했습니다. 이 AI 대학원은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신기술과 신학문의 산실이 될 것이며 관련 분야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발전과 사회 혁신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SK 미래관을 완공하여 IoT/ICT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캠퍼스 구축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의료원 청담캠퍼스 착공으로 고대 의료원의 강남시대를 준비하게 되었으며, 유취성 교우님의 지원으로 고대인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한 인성 스타연구자상을 제정하여 구체적 목표를 향한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세종캠퍼스는 신 정문·문화스포츠관·산학협력관 준공을 통하여 구성원들이 자랑스러워하고 머물고 싶은 캠퍼스 구축의 1단계 사업을 완수하였습니다. 창업과 기술이전을 통하여 기술사업화에서 역대 최고의 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과과 비교과 활동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수강신청제도 개선에 착수하였습니다. 개교기념일 및 고대인의 날 행사를 지역주민과 교우들에게 개방하였으며, 국제동화계대학, 해외사회봉사활동,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의 확대,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등 국제화 분야에서도 적지 않

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고대 가족 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온 결과일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고대가족 여러분! 오늘날 대학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또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격동의 변화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의 바람이 불면서 기존의 학문체계와 가치관이 붕괴되고 세상을 움직이는 패러다임과 프레임도 근본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때일수록 오랜 세월 연면하게 이어져 내려온 건학이념과 고대정신을 다시 새겨 봅니다. 고려대학교는 115년 전 국권을 찬탈당한 상태에서 학문연구와 교육으로 국권을 되찾고 인류 역사의 발전에 주도적으로 이바지하자는 온 민족의 여망을 담아 출발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바로 이 같은 건학이념과 자유 정의 진리의 교훈, 공선사후의 정신으로 역사의 고비마다 조국의 독립광복과 경제개발 그리고 민주화 등에 혁혁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역사와 정신을 되새기며 사회에 미래를 향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2019년 3월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창의고대', '사람고대', '화합고대'의 기치를 내건 바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신은 요즈음과 같은 혼돈의 시기에 혼란을 견어내고 새 역사를 여는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의란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으로 한 차원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입니다. 학문의 '패스트 팔로우'에서 '퍼스트 무버' 즉 '선도자'로 나서는 것이기도 합니다. 남보다 앞선 '선도자'로서 도전적으로 창의에 앞장설 때 어지러운 세상을 극복하는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성원들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마음

껏 연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학사 및 행정 제도와 시스템도 능률과 실용 위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최고로 앞세우는 '사람 중심의 고대'와 서로 진심으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통섭하는 '화합고대'의 기틀을 만드는 데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가 창의와 사람 그리고 화합의 정신을 도입하는 시기였다면 올해는 확실하게 그 뿌리를 내리는 착근의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더 많은 구성원과 더욱 자주 소통하겠습니다.

저는 취임 당시 2년 차에는 지속성장 가능한 혁신적 전략을 실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사회의 니즈를 해결하는 융합 연구 및 교육을 위하여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 필요한 공간 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연계 교양 교육 내실화와 ICT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 공간도 준비하겠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어느 특정 대학 또는 학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화합 고대'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융합연구원의 체계를 완비할 것이며, 데이터 과학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적된 경험과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4·19혁명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4·18은 오랜 세월 억눌려온 봉건과 독재의 사슬을 끊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 의지로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이 나라 민주화의 분기점이었습니다. 60주년을 맞는 새해에는 4·18의 정신을 한 차원 더 승화시키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새해부터는 고대의 역사와 정신 그리고 고대만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재정립함으로써 다시 한번 민족과 인류 앞에 등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고대가족 여러분! 등불은 어두울수록 더 밝아지고 영웅은 난세일수록 더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주변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 고려대학교에 대한 세상의 기대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창의고대', '사람고대', '화합고대'의 꽃을 피워 갑시다. 지난해 고대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고대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1일

총장 정 진 택

제20기 교육경영 AMP (구 교육경영 최고위과정)

1. 모집인원 : 40명 내외
2. 응시자격 : 교육기관 경영자, 교육 관련 기업대표 및 임직원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사로서 교육경영분야에 관심있는 분)
3. 모집일정 : 2019년 12월 1일(금) ~ 정원 총원 시 마감
4. 교육안내 : ● 교육기간 - 2020년 3월 ~ 2021년 2월 말까지(1년 과정)
● 강의시간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1시 20분
5. 등 록 금 : 450만원(1학기)

▶ 과정특전

- 고려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원 자격 부여 등

▶ 접수방법 : 입학지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를 작성 후 우편, 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

▶ 문 의 처 : 교육대학원 행정실(02-3290-1370,1373)

11월 27일(수) '2019년 KU 예비교사 엑스포'가 개최되었다. 28일(목)까지 이틀간 진행된 이번 엑스포는 예비교사의 미래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되었다. 첫째 날의 행사,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떠나보자.

전문가 특강 1: AI 시대, 미래교육을 이야기하다



11월 27일(수)부터 28일(목)까지 양일간 열린 '2019 KU 예비교사 엑스포'는 교육대학원 정태구 원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정태구 원장은 개회식에서 "미래에 있을 다양한 상황을 예측하고 고민하여 여러 전문가를 초청하고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였으니 이번 엑스포를 통해 새로운 영감과 정보를 얻어가기를 바란다."라며 인사를 전했다.

개회식에 이어 10시 20분부터 12시까지 두 명의 전문가가 각각의 주제로 미래교육에 관한 강연을 열었다. 첫 번째 특강은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의 김재현 교수가 'AI 시대, 미래교육을 이야기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했다.

엑스포 첫째 날: 예비교사, 미래교육을 만나다

전문가 특강 2: 교육 소프트웨어, 교실을 바꾼다



두 번째 특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정희 연구위원의 '교육 소프트웨어, 교실을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다.

사회 변화에 대한 안목을 기르고 문제해결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사의 역할이다. 이때 그 방향성은 교사가 아니라 학생 중심이어야 한다. 학생들의 빠른 흡수력을 염두에 두고, 가르쳐 양성하려 하기보다 아이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무대 내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교육에서는 '고민, 실행, 소통, 동참'이 필수 덕목이기에 협력을 위한 기본 전제는 상호 존중이다. 하지만 '나의 개성'을 표현하는

'실행력' 또한 21세기에 필요한 '역량'이다. 급속도로 변화해가는 시대에 자신을 효과적으로 표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협력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에게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는 '마음챙김(mindfulness)'의 시간이 필요하다.

'재미, 의미, 몰입'이 바탕이 되어 '소셜 임팩트(social impact)'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소프트웨어 교육의 최종 목표이다. 자신이 살아갈 세상을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자신감과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는 학생과 교사의 상호 변화에 기여하며 교육의 목적과 가치를 변화시킨다.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생 주도, 일상 관련, 사회적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라는 가치가 골고루 필요하다. 훌륭한 교사는 학생들을 대할 때 깊은 공감에서 출발하여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학생들의 자발적 문제해결력을 높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서정희 연구위원은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변하니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라며, 이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 중인 원우 및 학우들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를 권장하며 강연을 마쳤다.

미래교육 체험 1: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참여와 소통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번 2019 KU 예비교사 엑스포에서는 참여형 부스를 마련하였다. 오후 3시 30분부터 6시, 4층 로비에서 진행된 미래교육 체험 행사의 첫 번째 부스는 IoT 체험관, 두 번째 부스는 앱 개발 체험관이 설치되었다.

먼저 IoT 체험관의 경우, IoT에 대해 생소한 원우 및 학우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었다. IoT는 'Internet of Things'의 약자로, 사물인터넷이라고 불린다. 사물인터넷은 여러 사물에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을 말한다. 본교 교육대학원의 교육정보전공 원우들은 이번 IoT 체험

관 운영을 위해 마이크로비트(초소형 코딩용 컴퓨터)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센서, 토양 습도 센서, 스마트 RC가 등의 원리를 설명하는 한편 이를 학생들이 직접 조작해볼 수 있게 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앱 개발 체험관은 교육대학원 컴퓨터교육전공 원우들이 참여하여 코딩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코딩을 모르는 사람도 비교적 쉽게 이를 접할 수 있도록 스크래치 블록코딩 방식을 채택하여 눈길을 끌었다. 원우 및 학우들은 컴퓨터로 스크래치 블록을 직접 조합해봄으로써 음성녹음, 그림판, GPS, 번역기 등을 작동하는 원리를 배우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이처럼 사물인터넷이나 코딩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이번 참여형 부스는 미래수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따르기 위해 예비 교사들 역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임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을 것으로 보인다.

예비교사가 꿈꾸고 고민하는 교육 1: 수업을 향한 도전



이어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교육관 203호에서 '수업을 향한 도전: 미래수업 메가트렌드'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되었다. EBS TV 중학 국어 강사,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강연자로 나서는 등 국어 교사로서 맹활약하고 있는 경희여자중학교 강용철 교사가 강연자로 초청되었다.

먼저 강용철 교사는 향후 교사들의 교수법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 보았다. '아는 게 힘'인 시대로 직접 교수가 행해지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토의토론, 프로젝트, 하브루타, 배움공동체 교수법이 그 예이다. 그러나 미래교육에서는 창의융합형 실천지

능의 활성화를 위한 생산·공유 지향 교수법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는 실제 학생들이 주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결과물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끔 하는 것이다. 만약 한 국어 교사가 수업에서 '기사 쓰기'를 주제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학생들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글을 써본다. 이어서 이를 학급 및 교내에서 전시해보고 학생들은 가장 잘 쓴 기사를 스티커를 붙여 투표한다. 그리고 이 중 가장 호응이 뜨거운 기사를 지역신문사에 보낸다. 지역신문사는 이 기사를 싣는다. 즉, 미래교실은 수업 중의 결과물이 좋은 자료로 갈무리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강용철 교사는 미래 수업 키워드인 '디지털과 미디어', '의사소통과 질문', '노작, 경험, 실천 지능의 기회 제시'를 잘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교사는 창의·융합수업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사회 실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며 강연을 끝을 맺었다.

좋은 수업을 위한 예비교사들의 고민



오후 1시 30분부터 운초우선교육관 4층 로비에서 수업시연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번 수업시연 우수사례 발표는 지난 11월 7일(목)과 8일(금), 양일에 걸쳐 개최된 2019학년도 수업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이은혜 원우와 사범대학 체육교육학과 이영준 학우가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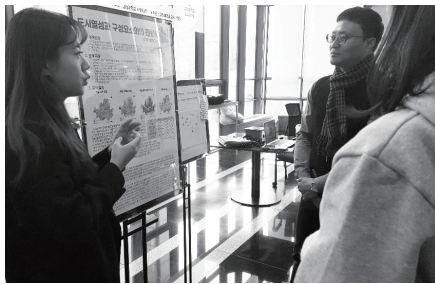
이은혜 원우는 '붕당정치와 당평정치'를 주제로 수업을 펼쳐 나갔다. '당평제'라는 소재로 동기를 유발하는 한편, 모듈활동 과정에서 마인드맵 기법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확산적 사고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모듈별 빙고게임을 실시하여 학습자들의 흥미가 수업의 후반부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섬세한 전개를 해 나감

으로써 교사를 꿈꾸는 많은 원우 및 학우들의 귀감이 되었다.

'사랑으로 가르치겠습니다.'라는 인사법으로 시작을 알린 이영준 학우는 '축구 경기 안팎의 다양한 역할'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축구라는 본시학습이 학습자들의 '선호종목 투표'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설정에서 학습자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수업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태블릿 PC와 'Mentimeter'라는 사이트를 활용한 모듈활동은 원우 및 학우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이는 최근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매체활용 수업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원우 및 학우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교실 환경에 대비하는 예비교사의 자세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두 수업은 학습자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 참신한 교수기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수업시연 우수사례 발표가 모두 끝난 뒤, 오후 2시 30분부터 운초우선교육관 4층 로비에서 포스터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번 포스터 발표에는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홍수빈, 지리교육



과 박세령, 이지건 학우가 참가하였다.

가정교육과 홍수빈 학우는 최근 자주 지목되는 기상문제 가운데 하나인 '도시열섬'과 그 현상을 유발·저감하는 요소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홍수빈 학우는 지표 온도를 상승시키는 요소로 '주거 및 상업지 면적률', '교통시설지 면적률', '공업지 면적률'이 있으며, 온도를 저감시키는 요인으로 '식피율'과 '하천 면적률'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특히, 이 가운데 '공업지 면적률'이 지표 온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지리교육과 박세령 학우는 '친환경 재생섬유를 통한 의생활'이라는 주제로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고, 이것을 포스터로 제작함으로써 실제 수업을 연상시키는 발표를 진행하였다. 또한,

원우 및 학우들이 '리오셀', '텐셀', '모달'이라는 친환경 재생섬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제공하였다. 학습자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에도 본 수업 지도안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끝으로 발표가 마무리 되었다.

지리교육과 이지건 학우는 '외국인 거주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서울시 가운데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영등포구를 기준으로 분석이 진행되었으며, '제조업 사업체 수', '도·소매업 사업체 수',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수', '숙박 및 음식점 수'가 주요 변인으로 거론되었다. 특히, 이 가운데 '도·소매업 사업체 수'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수'가 외국인 거주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처럼 이번 포스터 발표는 학우와 원우들이 타 분야에 대한 식견을 넓힐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며, 융·복합 인재를 추구하는 최근의 교육 흐름에 맞는 뜻깊은 소통의 장(場)이었다.

수업시연 우수사례 발표와 포스터 발표는 많은 학우와 원우들의 노력과 활발한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 될 수 있었다.

첫째 날의 열기를 이어 받아 둘째 날 행사 또한 많은 원우와 학우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둘째 날에는 어떠한 행사들이 펼쳐졌는지 그 기록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미래교육 체험 2: 함께 떠나 봐요, 미래교실로



미래교육 체험의 두 번째 이야기는 운초우선교육관 4층 로비에서 ‘함께 떠나 봐요, 미래교실로’라는 주제로 펼쳐졌다.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양혜지 교사는 당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래밍 수업을 실시하였다. 수업은 1팀과 2팀으로 나누어 전개되었으며, ‘친구와 함께 구현하는 아두이노 프로젝트’는 1팀을 대상으로, ‘친구와 함께 구현하는 파이썬 프로젝트’는 2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아두이노와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들은 ‘나만의 건강·환경 지킴이’라는 주제로 조원과 토론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각 팀의 과제를 스스로 정했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나만의 프로그래밍 노트’를 수업 자료로 제공하였다. 학생들은 소프트웨어나 컴퓨팅 기기를 단순 활용하는 것을 넘어 프로그래밍을 통해 직접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즉,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프로그램 구현함으로써 문제 해결 과정을 경험한 것이다. 이는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프로그래머가 될 학생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역량이자 자기표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소프트웨어와 피지컬 컴퓨팅으로 ‘참여형 부스’를 운영한 교육대학원 컴퓨터교육전공과 교육정보전

공 원우들은 많은 학우 및 원우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두 개의 체험관을 구성하였다. 먼저, 교육정보전공 원우들이 구성한 미래교실 부스의 ‘메이커 체험관’에는 레고처럼 블록을 끼워 맞춰 쉽게 프로그래밍하는 스크래치 언어와 메이키메이키 보드를 이용한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체험관에 들어서자마자 만나볼 수 있었던, 발로 연주하는 피아노 위에는 신발을 벗고 신나게 연주하는 학우와 신기해하는 대기자들이 있었다. 그 옆에서는 두 명의 학우들이 번갈아가며 활을 쓰면, 옆에 놓인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심판’의 역할을 하여 자동으로 점수를 채점하는 미니 양궁 게임이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점수규칙이나 효과음을 바꾸었다. 생각을 표현하는 프로그래밍 활동을 체험한 것이다.

다음으로 컴퓨터교육전공에서 구

성한 ‘센서-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는 컴퓨터를 통해 상상이 현실이 되는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스마트 패션 체험관’에서는 ‘릴리패드 아두이노’에 빛을 비추주는 LED 센서, 주변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 센서, 움직임을 감지하는 가속도 센서를 연결한 스마트 의류를 착용할 수 있었다. 부스 한편에서는 학우들이 릴리패드와 바느질 체험을 통해 반짝반짝 빛나는 스마트 의류가 ‘프로그래밍’을 입력받은 LED 전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스마트농장 등 생소하게 느껴졌던 용어들이 우리 생활 속에 성큼 다가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세상의 변화를 인지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프로그래밍이 우리의 생활을 얼마나 바꾸고 있는지를 느끼며, 미래가 바로 지금임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토크 콘서트: 책 속에 없는 학교현장 이야기



운초우선교육관 203호에서 토크 콘서트가 개최되었다. ‘예비교사, 현직교사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크 콘서트는 예비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된 자리로, 교육학과 이보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현직교사인 두 명의 게스트는 정신여자중학교의 한만수 교사와 구산중학교의 최연우 교사였다.

이보라 교수는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 토크 콘서트는 참여자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는 말로 토크 콘서트의 시작을 알렸다. 참여자들의 질의는 실시간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 ‘Slido’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 덕분에 보다 활발한 질의응답이 진행될 수 있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들에게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한

고민에 대해 한만수 교사는 “너무 급하게 다가가려 하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주는 것이 좋다. 학생들은 교사의 스킬이 아니라 교사의 심장으로 변화되는 것이다.”라는 말로 조언하였다. “학생이 무례한 행동을 보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최연우 교사는 “교사는 친구 같은 교사가 되어야 하지만 결코 학생의 친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충고하였다. 또한, 두 교사 모두 생활지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의 일관성 있는 태도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 교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이보라 교수는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할 때, 학생들로부터 상처도 많이 받지만 그들로부터 치유 또한 받는 것이 바로 교직생활인 것 같다.”라며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생활지도에 대한 현장교사의 진솔한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교사를 꿈꾸는 본교 재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글로는 배울 수 없는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더욱 지속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예비교사가 꿈꾸고 고민하는 교육 2: 수업을 통한 미래역량 강화, 협업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운초우선교육관 203호에서, 올해로 36년 차 교직에 임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 정보 교과 담당 유승욱 교사가 ‘수업을 통한 미래역량 강화, 협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유승욱 교사는 최근 코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첫째, 학생들이 즐겁고 재미있는 수업, 둘째, 학습자가 포기하지 않는 수업, 셋째,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교실 수업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



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업설계 사례를 본 강연에서 자세히 소개하였다.

또한, 유승욱 교사는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과제를 해결할 때 가장 즐겁게 참여하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

다는 것을 강조하며, 적절한 수준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경쟁과 협동을 통한 개인학습 혹은 그룹학습이 이루어질 때,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연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마무리되었다. 끝으로 이어진 경품 추첨 행사에서 이번 2019 KU 예비교사 엑스포의 모든 행사를 빠짐없이 전부 참여하여 상품을 받은 교육대학원 수학교육전공 임택준 원우는

“평소 무엇이든 배우는 것을 좋아하여 2019 KU 예비교사 엑스포에도 모두 참여하게 되었다. 나의 수업에서 부족한 점을 배우기 위한 답을 찾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 답을 구하게 되어 기쁘다. 다음에도 배움의 기회가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전했다.

〈특집 공동 취재〉

김경임 기자 bluewhale@korea.ac.kr
김재민 기자 lathinkerbella@korea.ac.kr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다양한 주제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탐구

엑스포 둘째 날인 11월 28일 오전 10시, 운초우선교육관 4층 로비에서는 총 5팀의 포스터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른 시간임에도 많은 교수·학생들이 참여해 발표 주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고, 스티커 붙이기를 통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팀을 선정하기도 했다.



먼저 국어교육과 김동현 학우는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형성을 위한 공론장과 국어교육의 관계에 대한 예비적 탐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자는 거시적으로는 반(反) (제도권) 정치 지형의 형성, 미시적으로는 시민들 간 소통의 마비 및 공인의 담론 윤리 파괴 등을 근거로

한국 사회 공론장의 상태를 위기로 진단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어교육에서 강조되는 건 다음 두 가지이다. 먼저 내용적 측면에서 △비평과 토의·토론 교육 강화 △공감 능력 강화 △담론 윤리 교육 등에 대한 부분을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과정 및 운영의 측면에서는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및 유연성 확보 △국가체계와 국어교육의 관계에 대한 향존적 성찰 △국어교육 제도화 과정에서 공론의 개방성 확대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정교육과 김민주·박수현·임재은 학우는 ‘뽕뽕뽕 뽕뽕로 속 성교 정관념’이라는 주제로 아동용 애니메이션에 성교정관념이 표현되는 양상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첫째, 남성 캐릭터들은 주로 푸른색과 바지, 여성 캐릭터들은 붉은 계열의 대표색과 치마라는 고전적인 외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역할검사도 구인 KSRI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힘센 남자 아이는 과묵하고 늘 타인

을 배려해 힘든 일을 담당해야 하며, 여자 아이는 외모에 관심이 많고 체력이 좋지 못해 늘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관념을 투영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각 에피소드의 문제를 유발시키고 해결하는 주체의 성별 비중은 둘 다 압도적으로 남성 캐릭터인 경우가 많았다. 발표자들은 아동이 타인의 역량을 성별에 근거한 것이 아닌, 온전히 개인의 것으로 인지하도록 교육하기 위해 영상물의 표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국어교육과 김준호 학우는 ‘SNS 시를 활용한 문학교육 방안의 고찰’을 주제로 2010년대 들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SNS(Social Network Service) 시’의 문학교육적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발표자가 주목한 SNS시의 특징은 △일상 속 제재의 활용 △참신한 비유적 표현 △작가와 독자 간의 원활한 소통 등이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SNS시는 첫째, 학습활동 비계로 활용하기 용이하

다. 둘째, 형식·주제·분량 면에서 부담이 적어 중등 학습자의 창작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전달 매체의 특성에 따른 작품의 창작 양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발표자는 결론에서 작품의 완성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학습자를 일상에서 문학을 향유하는 ‘생산자’로 정초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SNS 시 활용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국어교육과 임세준 학우는 ‘대학생 독서모임 양상 및 대학생 독자 연구’에서 대학생 독자 연구의 기초 작업으로서 대학생 독서모임의 운영 현황을 분석했다. 발표자에 따르면 대학생 독자는 그간 독자 연구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한 대상이었다. 그러나 △독서에 대한 흥미가 반등하는 시기라는 점 △자발적 독자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대학생 독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발표자는 10개 대학을 선정해 부분적으로나마 독서모임 운영 상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첫째, 독서모임(혹은 동아리)이 운영되지 않는 학교가 의외로 많았다. 둘째, ‘독서 능력’ 자체의 신장보다 ‘토의’ 형태로 운영되는 모임의 비중이 높았다. 셋째, 대학과 학과의 특성에 따라 운영 양상이나 구성원의 요구사항이 매우 다양했다. 넷째, 독서 능력 자체 외에 사회적 활동의 요소가 매우 강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독서모임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독서모임에서 ‘화법’, ‘작문’ 등과 구별되는 ‘독서 능력’ 자체의 신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탐구를 후속 작업으로 제시하며 발표를 마쳤다.

문장원 기자 creep0927@korea.ac.kr

교육대학원 제56대 총학생회장 신년사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제56대 총학생회장 문성지입니다. 교육대학원 그리고 사범대학 가족 여러분의 지난 한 해는 어떠셨는지요? 매년 찾아오는 새해이지만 2020 경자년(庚子年)에는 계획한 일을 향해 힘찬 걸음을 내딛고, 나아가 달콤한 열매를 맺으시길 소망합니다.

‘간식 든든! 행정 든든!’이라는 구호로 출범한 제56대 총학생회가 교육대학원 원우 여러분과 한 학기를 보내고 이제 다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원우 여러분과 마주했던 많은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지난 가을 개최된 제3회 특수대학원 단결단합 체육대회입니다. 자랑스러운 교육대학원 원우 여러분의 끈끈한 단결력과 쟁쟁한 실력 덕분에 교육대학원은 족구를 제외한 전 종목에서 우승하며 단독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교우회장님을 비롯해 졸업한 선배들이 함께 찾아주시

고 후원해주셨기에 더욱 벅차고 흥겨운 하루였습니다. 함께 뛰며 소리쳐 응원했던 뜨거운 그 순간을 기억하며, 잘 해냈던 정책은 더욱 섬세하게, 부족했던 부분은 다시 살펴보고 보완하여 새 학기에는 더 힘차게 원우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는 전대(前代) 총학생회의 여러 사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원우 여러분과 만나 소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등임용시험 학원과 MOU 체결, 교육학 특강을 진행하였고 제3회 특수대학원 연합 체육대회를 주관하였습니다. 또한, 경조사 화환·신입생 입학 기념품·종합시험 응원 기념품·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응원 간식을 지원하였고, 겨울 토포링을 제작하였으며, 휴게실 인쇄 및 커피사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특별히 2019년에는 교원임용시험에 한하여 응시료를 일부 지원했던 것을 청 소년상담사시험까지 확대하여 지원

하였습니다. 지난 학기 동안 추진한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 원우 여러분의 알찬 대학원 생활을 돕고자 합니다. 먼저, 휴게실에 새 개정 교과서 및 지도서를 구비하고 교원임용시험 일정에 맞추어 1, 2차 대비 전공 특강을 진행함으로써 ‘선생님의 꿈을 더욱 꿈꾸게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안에서 원우 여러분이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갈 수 있도록 친목 도모 행사 및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졸업 예정 원우들이 다섯 학기 여정을 마치며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학사모 사진 촬영 할인 제휴를 사진관과 맺을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학기에도 원우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참신한 의견을 바탕으로 양질의 사업을 이어가겠습니다.

오행상 2020년 ‘경자년(庚子年)’의 경(庚)은 금(金)이고 자(子)는 수(水)입니다. ‘경’은 큰 바위 혹은 광산에서 캐낸 원철이며, ‘자’는 큰물을 뜻해 ‘큰 바위에서 물이 팔팔 솟음’ 혹은 ‘먹구름(庚)이 큰 비(子)가 났음’을 의미합니다. 학업, 일터 등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맘 흘리며 배움에 힘쓰는 교육대학원 원우 여러분, 2020년에는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바위처럼 꿋꿋하고 강하게, 흔들리지 않고 버티어 크게 길한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56대 총학생회 역시 새로운 마음으로 교육대학원의 발전과 원우 여러분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든든히 버티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육대학원 제56대 총학생회
회장 문성지

2019학년도 1학기 석탑강의상 시상식



지난 12월 3일(화) 오후 5시 사범대학장실에서 2019학년도 1학기 석탑강의상 시상식이 있었다. 사범대학에서는 2003학년도 1학기부터 매 학기 강의가 종료된 후 수강자들의 설문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5%에 속한 강의의 담당 교수들에게 본 상

을 수여한다.

시상식을 위해 정태구 사범대학장, 김유범 교무부학장, 김동중 연구부학장, 교직원 김태복 차장이 참석하였다. 정태구 사범대학장은 석탑강의상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달하며 상패를 수여하였다.

이번 석탑강의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가나다순)
△권순희(수학교육과, 현대대수)
△김홍찬(수학교육과, 미분기하)
△봉미미(교육학과, 학습동기)
△유정인(체육교육과, 체육교육개론)
△윤성진(체육교육과, 스포츠생리학)
△이동운(교직팀, 교육학개론)
△이민혜(교직팀, 교육심리)
△정연길(체육교육과, 스포츠영어)

김경임 기자 bluewhale@korea.ac.kr

김부성 지리교육과 교수 사범대학 발전기금 약정식



지난 12월 17일(화) 오후 2시 운초우선교육관 4층 학장실에서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김부성 교수의 사범대학 발전기금(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및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지정) 약정식이 있었다.

김부성 교수는 1988년 3월 본교 지리교육과 교수로 부임하여 약 32년간 지리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써왔으며 이번에 기부금 5,000만 원을 약정하였다. 약정식에는 정태구 사범대학장, 김동중 연구부학장, 송혁기 대

외협력처장과 지리교육과 홍금수, 김영호 교수 및 재학생들이 참석하였다. 정태구 사범대학장은 기부증서와 감사패를 전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운초우선교육관 406A호 앞에서 강의실 현판식이 진행되었다. 김부성 교수는 “내년 1학기까지 보내면 정년퇴임을 하게 된다. 제 인생의 많은 시간을 고려대학교와 함께 보내 매우 뜻깊다.”라며 “남편이 대한민국의학술원장을 받아 감사하게도 상급

을 받았다. 그중 일부를 고려대학교에 기부하게 되었다. 향후에도 고려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이 이어지기를 기원한다.”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김경임 기자 bluewhale@korea.ac.kr

원고를 모집합니다.

- 교육신문사에서는 교육대학원·사범대 재학생 및 교우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 원고 모집 지면은 ‘교육과 이슈’, ‘교육현장노트’입니다. 글을 보내주신 학우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분 량 : A4용지 1매
· 보 낼 곳 : edunews@korea.ac.kr
· 문의사항 : 교육신문사
02-3290-1690

2020학년도 교원임용시험 2차 대비 수업실연 클리닉

2019년 12월 31(화)부터 2020년 1월 10일(금)까지 교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교원임용시험) 2차 대비 수업실연 클리닉이 진행된다. 이는 수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교원임용 2차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번 수업실연 클리닉은 본교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일반대학 교직원 정 이수자 가운데 2020학년도 교원임용시험 준비 및 응시자(재학생 및

졸업생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2019년 12월 13일(금)부터 22일(일)까지 10일간 이루어진 신청에서 참관이 아닌 수업실연을 택한 학생은 사전 제출한 수업지도안을 토대로 20분 이내의 수업을 실현하게 되며, 실연 후에는 교수 및 현직 교사로부터 피드백을 받는다. 세부 일정 및 강의실은 다음과 같다.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전공	일자 및 시간	장소
가정교육전공	2020년 1월 3일(금) 13:30~17:30	운초우선교육관 407호
국어교육전공	2020년 1월 4일(토) 10:00~19:00	운초우선교육관 406호, 406A호
수학교육전공	2020년 1월 3일(금) 18:00~22:00	운초우선교육관 407호
역사교육전공	2020년 1월 7일(화) 13:00~19:00	운초우선교육관 407호
영어교육전공	2020년 1월 3일(금) 17:30~20:30	운초우선교육관 406호
지리교육전공	2020년 1월 10일(금) 14:00~16:00	운초우선교육관 407호
체육교육전공	2019년 12월 31일(화) 19:00~22:00	운초우선교육관 407호

교육경영 AMP 담임 임명식

지난 12월 11일(수) 오후 4시 교육대학원 원장실에서 ‘교육경영 AMP담임 임명식’이 있었다. 임명식은 정태구 원장을 비롯해 박종훈 부원장, 교육경영 AMP 김한우 교우회장, 교육경영 AMP 양채진 담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임명식 참석자들은 기념 단체사진을 촬영한 후 원장실에 모여 담소를 나누었다. 또한, 교육경영 AMP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후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석주 담임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양채진 담임은 “교육경영 AMP 제20기의 교육 목표를 ‘Back

to the Basic’으로 정하여 교육경영자들이 기본에 충실한 마케터가 될 수 있도록 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겠다.”라며, “이 자리를 맡은 만큼 어깨가 무겁다. 하지만 기본과 본질을 보는 안목을 키우기 위해 각자 자신이 지니고 있는 마음의 코어(core) 근육을 단련하여 자신 있는 결정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김재민 기자 lathinkerbella@korea.ac.kr

교육과 이슈



김상규

前 북경 전정초월국제학교장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고 학생들과의 생활에 보람을 느끼기 위해 교직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육현장은 교권침해로 인해 선생님의 사기가 저하되고 교실은 붕괴하고 있습니다.

Ⅰ 교권침해의 유형과 실태

교권침해 유형에는 학생의 수업 방해 및 지도 불응, 학부모·학생의 폭행, 폭언, 협박, 남학생들의 여선생님에 대한 도를 넘는 성희롱 등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이 교칙을 지키지 않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해도 제재하기가 힘들고 사랑의 매를 들어도 문제가 되는 시대이니 선생님이 설 자리는 어디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교권침해를 당한 선생님은 자괴감에 교직을 떠나거나, 힘들게 근무를 견디다가 병가·휴직을 내거나, 혹은 다른 학교로 옮겨 갑니다. 하지만 교권침해 학생은 출석정지, 봉사, 특별교육 이수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만 받고, 선생님들을 기만하는 학생의 행동은 변함이 없어 교권 붕괴

약순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스승에 대한 존경과 믿음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권이 바로 서고 교사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권이 보장되어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스승 존경 풍토가 조성되지 않으면 교육의 미래는 없습니다. 교권의 확립은 교원과 학생들 간에 유대감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Ⅱ 교권이란

교권이란 교원이 지니는 권위와 권리입니다. 교원으로서의 권위란 교육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을 뜻하며, 권리란 교육할 권리인 교육권, 전문직 종사자로서 권리, 인간으로서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교권은 교직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유지하고 교육 발전을 위한 본질적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Ⅲ 교권침해의 원인

교권침해가 일어나는 원인은 다음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던 소위 일류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자리에 앉아 특권을 누리며 잘 살면 되는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이에 편승한 학생들이 입시 위주로 가르치는 학원에서는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지만, 학교에서는 잠을 자거나 수업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이 입시를 위한 성적에만 치중한 나머지 학생의 수업 태도, 생활지도, 인성교육 등은 소홀이 되어 교권침해가 일차적으로 기인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인간으로의 삶을 안내하는 교육이 아니라 교과서만 암기하고 시험문제만 풀이하는 수업 환경에서는 선생님을 존경하거나 교권이

바로 서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 인격 소양이 있어야 실력이든 능력이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적이 좋다 해도 바른 인성의 소유자가 아니면 우수한 실력이 있다 해도 이것이 오히려 자신을 실패하는 길로 이끌고,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도 막대한 해를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입시에서 인재를 선발할 때 성적 위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바른 인성의 소유자인지의 여부를 더욱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교권을 침해하거나 비행을 하는 학생은 입시에서 불이익을 주는 입시선발 요강이 작용해야 효과적인 개선이 될 것입니다.

Ⅳ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몇 년 전부터는 선생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고 비행 학생의 교정, 교화도 힘을 잃어 학생 통제가 정말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결과적으로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교직 문화 속에서 교육 주체들 간에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찾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학생의 인권이 소중한 것만큼이나 선생님의 교권도 역시 소중합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 중 분명히 부작용이 예견되는 부분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교권침해는 선생님의 권위와 학생과 선생님 간의 관계를 원천적으로 파괴합니다. 또한, 교실 내 다른 학생의 학습 및 정서에 지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선생님 지도에 불응하거나 학생으로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하는 한편 최소한 선생님이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그 권위와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교육적인 제재수단도 있어야 합니다.

Ⅰ 가정교육의 중요성

가정은 자녀에게 교육의 초석을 놓는 곳입니다. 오늘날 학부모 중에는 선생님보다 지식 면이나 능력 면에서 더 우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학부모는 자기 아이를 위하여 선생님을 존중합니다. 아이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기 바란다면 부모님이 선생님을 존중하고 선생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정교육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선생님을 존중할 때, 아이 또한 선생님을 존중하며 학교생활도 착실히 잘하게 됩니다.

자녀교육에 가장 성공하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은 ‘학생은 선생님을 부모님보다 더 존경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선생님에 대한 존경은 교육을 잘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선생님의 권위를 세우고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학교 문화를 존경과 사랑의 상생 풍토로 변화시켜 선생님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온정적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선생님은 학생을 사랑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선생님을 존중하는 교권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어야 진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Ⅱ 교권보호를 위한 방안

얼마 전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라도 개정 교원지위법이 현장에 안착되어 선생님의 학생지도권 회복과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움츠렸던 선생님들이 자신감과 자긍심을 되찾아 선생님의 열정을 교육 발전에 전념하여 보람 있는 교직 생활을 영위하는 계

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법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학생·학부모를 비롯한 전 국민의 스승에 대한 존중에 대한 부활이므로 학교에서 스승에 대한 존경과 제자 사랑이 정착되도록 교육공통체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선생님의 역할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우수한 지성인 중 하나로서 공부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본보기로서 역할을 합니다.

만약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미래의 주인공을 육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학생과 상호작용에 문제를 일으키고,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리 아이들이 이루어야 할 중대한 과업을 완수하는 데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Ⅲ 교사의 노력도 필요

교육은 개인이나 국가발전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은 수용과 체화과정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이를 위해 교육자는 양질의 교육에 정진하고 모범적 행동으로 교육자의 자격이 무엇인지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선행조건으로써 교원에 대한 존중이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교육은 선생님과 학생 간 상호인격적 관계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를 통한 사제 간 사랑과 존경도 필수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제 간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보고 싶습니다.

교권이 살아 사제 간의 교학상장(敎學相長)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교육이 되살아나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 속에 희망찬 미래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OECD 국제 학업성취도 비교 연구(PISA 2018) 결과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는 12월 3일(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이하 PISA) 2018 결과를 공식 발표하였다.

PISA는 만 15세 학생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의 성취와 추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교육맥락 변인과 성취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시행되는 국제 비교 연구이다. PISA 2018은 전 세계 79개국(OECD 회원국 37개국, 비회원국 42개국)에서 약 71만 명이 참여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88개교 총 6,876명(중학교 34개교 917명, 고등학교 154개교 5,881명, 각종학교 2개교 78명)이 참여하였다. 우리나라의 PISA 2018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PISA 2018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상위 수준의 성취를 보였으며, 전 영역에서 OECD 평균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하였다. OECD 회원국 중 읽기 2~7위, 수학 1~4위, 과학 3~5위로 높은 성취를 나타냈으며, 전체 79개국 중에서도 읽기 6~11위, 수학 5~9위, 과학 6~10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PISA 2015 대비 OECD 회원국의 평균 점수는 전 영역에서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는 수학과 과학의 평균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성취 수준은 참여국 중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PISA 2009 대비 우리나라 남학생의 읽기 즐거움 지수는 0.2 상승하고 여학생의 읽기 즐거움 지수는 변화가 없는 반면, OECD 평균 남학생과 여학생의 읽기 즐거움 지수는 다소 하락하였다. 한편 ‘학교 밖 읽기 경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만화, 소설류, 비소설류’ 읽기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았고, ‘잡지, 신문’의 읽기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PISA 2015 대비 우리나라 학생들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요즘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얼마나 만족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0(전혀 만족하지 않음)부터 10(완벽히 만족함)까지의 척도로 응답한 값의 평균이다.

교육부는 PISA 결과를 토대로 역량 중심의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계획 내·외부 전문가의 논의 및 후속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PISA 2018 최상위 국가들의 교육정책 변화 및 국제적인 교육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발표

교육부는 12월 18일(수),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사학의 부정·비리에 대해 엄정한 조사·감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학혁신 방안에 5개 분야 제도 개선 과제를 담았다.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업무 추진비 공개 대상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확대하고 회계 부정임원 승인 취소 기준을 구체화한다. 또한, 주기적 점검 및 사용계획 공개 등을 추진한다.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학교법인 임원 간 친족관계 및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공시하고, 개법이사는 설립자 및 설립자의 친족 등을 제외하며, 비리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당연퇴임 조항을 신설한다.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대비리의 경우 교직원에 대한 재심을 관할한다.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한다.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 교원 소청심사 결과의 기속력을 확보하고, 사립교원의 육아휴직 보장화 및 사립교원의 파견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부 자체혁신 교육부 내 사학 관련 부서 간 직원의 인사이동을 일정기간 제한한다. 또한, 퇴직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 제한을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고, 공익 신고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한 법률 개정 노력을 한다.

교육부는 이번 추진 방안의 다수 과제가 법령 개정 사항임을 감안하여 시행령 등 행정입법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며, 행정 입법 및 법률 개정과정에서 사학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과제를 추진할 것이다.

학자금대출 상환 관련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교육부는 12월 5일(목)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졸업생(이하 대출자)이 사망·심신장애로 상환능력을 잃어버린 경우 남은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현재는 학자금대출 이후 대출자가 사망하더라도 채무면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상속인에게 채무상환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대출자가 중증장애인이 되더라도 다른 대출자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의 채무를 상환하여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될 경우 남은 채무를 먼저 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입법예고 된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가액 한도 안에서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할 수 없는 남은 채무는 면제한다. 대출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의 남은 원금의 90%를 면제하고, 중증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대출자의 재산가액 내에서 남은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상환하고 남은 원금의 70%를 면제한다. 그리고 대출원금 이외의 이자와 지연배상금 등도 전액 면제한다.

채무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 채무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대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 대리인이 채무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속한정승인 판결문(법원에 한정승인 청구한 경우에 해당),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심신장애인인 경우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 대리인이 채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연금수급자에 해당),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자금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계층이 학자금대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적처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5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과 학문

학교구 내 고교 간 역할 분담을 통한 진로 탐색과정 운영 방안



조호제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Ⅰ 진로 탐색과정의 의미와 필요성

Spencer(1860)의 교육과정에서 근원적 가치문제를 제시하는 ‘어떤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가?’라는 질문을 빌려, 고교생에게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중 어떤 교과가 가장 가치 있는지 묻는다면 곧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여 대답할 가능성이 높다. 고교에서 교과를 통한 학습은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교생의 진로와 밀접하게 연계된 진로 탐색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국가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진로 탐색과정은 고교생이 자신의 전공이나 진로에 맞게 계열을 선정하면 보다 세부적인 영역을 탐색하여 이수하는 과정이다. 이는 초·중등 교육법 제48조, ‘고교에 학과를 둘 수 있으며 고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한다’라는 법령과 맥락을 함께 한다. 또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는 고교 교육목표와도 연결된다.

진로 탐색과정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교 학점제와 유사하나 현재 고교의 운영 체제, 교육 시설 및 환경에 큰 구애를 받지 않고 학점제가 갖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진로 탐색과정은 고교 1학년은 공통, 2학년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 체육 등 최소 네 계열 중 선택, 3학년은 각자의 진로에 따라 대학진학 후 기초 학습이 되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방식은 고교생들 개인의 재능이 교육을 통해 발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학업과 진로를 준비

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고교 교육이 학습자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서로 다른 비중을 두고 교과목을 선택하는 상이선택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어, 자신의 강점과 잠재적 역량을 한껏 발휘하게 하여 강점강화형의 교육도 가능하다.

Ⅱ 예비 고교생의 진로와 학업에 대한 의견 분석

진로 탐색과정의 운영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중학생의 진로별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경기도 Y시에 소재한 50개 공·사립 중학교 3학년 각 1개 반을 표집으로 하여 1,7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 48개 중학교 1,560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에서 고교 졸업 후 생각하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응답으로는 ‘대학진학 희망’이 91.5%를 차지하였다. 고교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기준으로는 진로에 도움이 되어서(34.6%), 본인의 학교성적에 맞추어서(18.8%), 본인의 적성 계발에 도움이 되는 정도(12.7%) 등이었다. 어떠한 고교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부할 수 있는 고교 선택이 96%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고교 진학 후 공부하고 싶은 계열은 과학기술계열(47.5%), 인문사회계열(42.2%), 예술 계열(6.2%), 체육 계열(4.0%)이었다. 이를 세분화하여 각 계열별로 알아본 결과 과학기술계열에서는 정보(IT)과정(35.3%), 공학과정(21.8%), 보건의료과정(19.7%), 기초과학(이학)과정(19.6%)의 순으로 진학하기를 희망하였고,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인문과정(32.7%), 사회과정(26.8%), 경상과정(25.3%), 국제과정(12.9%), 기타(2.3%) 등으로 나타났다. 예술계열에서는 미술·디자인과정(37.5%)과 음악과정(33.0%)에 대한 선택이 많았다. 소수이지만 문화콘텐츠과정(9.1%)과 연

극영화과정(8.0%)의 공부에 집중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체육계열에서는 체육 스포츠 관련 산업과정(35.1%), 개인운동인 체조와 육상과정(29.8%), 단체운동인 구기과정(24.6%) 등으로 나타났다. 고교 간 역할분담과 학교 선택에 관한 의견은 인근 고교가 협력 및 역할 분담하여 학생들의 여러 진로에 따른 다양한 교과목들을 개설해 주기를 기대(85.7%)하고 있었다. 한편, 진로별 입시를 치르는 것은 찬성 의견(87.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Ⅲ 진로 탐색과정의 구현을 위한 시뮬레이션

경기도 Y시 소재의 진학계 고교 수준에서 개설 가능한 진로 탐색과정이 일정 지역 내에서 고교 간 클러스터를 이루었을 때, 구현 가능한 것으로 상정하고 이를 모의 실행한 결과 실제로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구 고교 간 진로별 학생의 모의 배정, 즉 진로 탐색과정의 고교 간 모의 배정은 Y시에 소재하는 50개 중학교에서 고교 입학을 앞둔 3학년, 393개 학급, 10,153명의 학생 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기존의 3개 학구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 미세 조정된 3개 학교구에 속하는 26개 진학계 고교에서 4계열 15개 진로 탐색과정의 실현가능성을 모의 배정하였다. 하나의 학교구 내에서 예비 고교생에게 진로에 따른 성향을 파악하여 학교구 내 고교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인문사회계열, 과학기술계열, 예술계열, 체육계열 등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배정된 것이다. 따라서 학생이 학교 간 이동수업을 듣는 방식이 아니라 고교 배정부터 해당 고교에 배치하는 것이다. 특히, 예술계열이나 체육계열은 학구 내에서 분산적으로 지원하던 예산이나 시설 지원 등을 특정 학교에 집중화시킬 수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교사 역시 집중 배치하여 질 높은 교육활동이 가능하다. 학생의 진로별 모의 배정에

는 중학생의 진로 요구와 현재의 고교 분포 등을 고려하였고 설문 결과, 전문가 의견, 델파이 조사와 각종 통계 자료에 근거한 산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Ⅳ 논의 및 결론

이와 같은 중학생의 진로 탐색과정의 개설 요구에 의한 고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 탐색과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구, 단위 고교 등이 상호 간 역할 분담 체계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한다. 둘째, 진로 탐색과정을 구현하기 전에 학생의 생활권역별 학교들을 묶은 협력체인 학교구의 역할이 분명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고교들은 고교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을 위한 학교구 설정이 잘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고교 교육과정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문·이과로 양분된 단순한 교육과정보다 다양한 진로별 교육과정을 원하고 있다. 둘째, 전문가들은 고교에서 다양한 계열과 진로 탐색과정을 개설해도 학교구 고교 간 협력을 통해 구현 가능하다고 보았다. 셋째, 진로 탐색과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구, 단위 고교 등의 상호 역할 분담 체계가 명확해야 고교 간 협력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 넷째, 전국의 학교 수와 학교의 규모(학생 및 학급 수)에 기초하여 구분 가능한 학교구는 크게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산어촌형 등 3가지로 유형화될 수 있다. 다섯째, 단위 고교가 아니라 여러 학교들의 협력과 역할 분담에 의한 학교구는 진로 탐색과정을 구현하는 중심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교육현장 노트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위한 수업



윤미영
세종시 양지고등학교/국어교육전공

교사가 되기 전, ‘나는 어떤 국어 수업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 종종 고민을 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 학생들이 자신을 성찰하는 한편 타인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문학 수업을 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나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각자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하곤 하였다.

이러한 이상을 품고 있던 중 나는 농촌의 전원학교로 첫 발령을 받게 되었다. 첫 출근을 할 때 신었던 구두와 그때 만난 학생들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하다. 그해 직무연수를 300시간 넘게 받았으니, 신규교사로서의 그 열정이 참으로 대단했던 것 같다. 돌이켜보면 과학 교과와 연계하여 보고하는 글쓰기 수업을 했던 기억도 나고, 토론 수업을 위해 늦은 밤까지 학생들을 지도하던 경험도 모두 소중한 추억들로 떠오른다.

전원학교에서의 추억을 뒤로하고, 학급 수 감축으로 인해 나는 1년 뒤 새로운 학교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곳은 출근할 때 오가며 봐왔던 신설학교였다. 흙더미에서부터 시작하여 건물을 이루기까지, 학교 형성의 모든 과정을 지켜봐 와서일까. 학생들과의 수업을 상상할 때면 묘한 기분이 들었다.

무엇이든 새로 시작해야 하는 신설학교. 2년 차 신규교사인 내게 배정된 업무 중 하나는 도서관을 만드는 일이었다.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은 공간에 ‘도서관’이라는 표지만 붙어 있는 그곳을 처음 본 순간 막막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은 서가를 놓고 수천 권의 책을 주문하는 업무가 아니라,

바로 학생 문제였다. 미숙한 업무 능력과 쌓인 공문은 야근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학생들의 문제는 그리 간단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 학교에는 정부청사 및 연구기관들이 세 종시로 이전되면서 유입된 학생, 주변지역에서 이사 온 학생, 본래 이 지역에 거주하던 학생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였다. 주변 학교에서 자퇴·퇴학하고 복학한 학생들까지 더하니 정말 학생들의 환경과 학업 수준이 천차만별이었다. 그러다보니 매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생활지도는 물론 수업 진행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이 만났으니 불협화음은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국어 수업을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다시금 던져보았다. 또한, 내가 바라는, 학생들이 바라는 국어교사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 끝에 얻은 답은 학생들 개개인을 인정하고 경청하자는 것이었다. 수업 재구성성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수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싶었다. 학생들이 국어 수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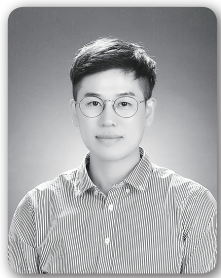
할 수 있는 ‘판’을 벌어주는 것이 바로 나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로 하여금 ‘더불어 사는 삶’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나만의 ‘수업 관점’이 생긴 것이다.

한 학기 문학 수업을 마치고 발표회를 했다. 나는 학생의 권유로 기타를 배워 아주 미숙한 솜씨로 기타 연주를 했다. 서툴고 창피한 기타 솜씨에도 학생들은 같이 웃고 박수를 쳐주었다. 미숙하고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친구와 교사가 이를 지지해줄 때,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어쩌면 학교에서 이야기해 나가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닐까.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 줌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 말이다.

다시 시작이다. 오는 3월 새로운 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므로 나는 또다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학생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변함없이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수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국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삶의 다양한 모습을 배울 것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더 좋은 세상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학교현장 탐방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으로 교사 전문성 신장에 앞장서는 거제 상문고등학교



김태원
거제 상문고등학교 교사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말과 거제 상문고등학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 상문고등학교에서 물리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김태원입니다. 본교에 부임한 지 4년 차이고, 현재 교과교실연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거제 상문고등학교는 거제시 문동동에 위치한 공립 고등학교입니다. 2013년 개교한 학교로 역사는 짧지만 열정 넘치는 교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지역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으로 개울과 들판이 있어, 점심시간이 되면 식사를 끝낸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연과 배움이 어우러진 학습의 장(場), 그곳이 바로 거제 상문고등학교입니다.

거제 상문고등학교의 교육목표와 특징은 무엇입니까?

1092명의 학생, 34개의 학급으로 이루어진 거제 상문고등학교는 '창의', '예지', '협동'이라는 교훈 아래, '꿈을 가꾸며 미래를 열어가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원칙과 기본을 지키고자 합니다. 둘째, 남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셋째, 창의력을 키워가는 교육활동을 통해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교는 개교 이래로 지금까지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운영함으로써 교육 혁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 거제 상문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적학습공동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 현장에서 교사의 수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켜 수업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모임이 생겨나게 되었

고, 최근에는 이러한 모임이 전문적 학습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통일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교사의 수업 역량을 높이고,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사 모임입니다.

본교에서는 2017년부터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는 교과 모임, 진로 진학 모임, 융합 수업 모임 등 총 13개의 전문적학습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 본교에서는 다음 세 가지 활동을 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업 나눔 주간 운영입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가장 큰 목적이 가운데 하나는 수업의 개방, 공유를 통해 폐쇄적인 교실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교는 한 달에 한번 수업 나눔 주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주간 동안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속한 교사들은 수업 나눔을 실시합니다. 수업 나눔 후에는 수업 협의회를 통해 수업의 좋았던 점을 이야기하며 수업자를 격려하는 한편, 학생에게 어떤 배움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며 마무리합니다.

둘째, 한 학기에 한 번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주제로 상문수업나눔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부스 전시와 수업사례나눔 활동으로 구성된 상문수업나눔축제는 올해도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축제 2주일 전부터 각 전문적학습공동체는 한 학기 동안의 연구 성과물을 전시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축제 당일에는 복도 홈페이지에 각 동아리 부스를 준비한 뒤, 전시 및 관람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특히, 이 자리에 교원뿐 아니라 행정실, 급식소에서 종사하시는 분들까지도 모두 초대해 본교의 교육을 이야기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수업사례나눔은 평소 수업을 하며 고민했던 것들을 나누는 시간으로, 수업 아이디어를 공유함과 동시에 동료들과 함께 서로의 고민을 나누게 됩니다.

셋째, 수업 자료집 제작입니다. 수업 자료집은 일 년간 고민하고 노력했던 흔적들이 일회성에 그치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연말에 각 학습공동체의 결과물을 수합한 뒤, 이를 편집하여 책으로 만들어 다시 선생님들께 나누어 줍니다. 이는 서로의 노력과 성과의 산물이기 때문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분명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가장 큰 장점은 수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 대부분이 수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해야 할 수업, 내일 하게 될 수업 준비에 급급한 나머지,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업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해왔던 수업방식을 답습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타개하기 위해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서로의 수업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토의·토론함으로써 더 나은 수업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타교과 수업 참관, 새로운 수업자료 탐색, 새로운 형태의 수업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이 과정 속에서 교과를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한편, 새로운 형태의 수업을 익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여러 모습을 발견하고, 교과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체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수업에 대한 자존감은 교직의 만족감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결국 학생에게 좋은 영향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함에 있어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업무로 인해 운영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일과 시간 중에는 모임을 가질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일과 외의 시간을 이용해야 할 때가 많은데, 가정이 있는 교사의 경우 참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 시간을 정규시간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문고에서는 2주일에 한 번,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 시간을 정규시간에 포함시켜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교직원 연수, 학교 행사, 교직원 회의 등에 밀린 경우가 많아, 여전히 운영시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에 대한 선생님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전문적학습공동체에 대

해 거부감을 가지는 선생님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가중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이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함께 연수·수강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에는 부정적이었던 종래의 인식이 크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회원 모집, 활발한 연수 참여, 함께 하는 독서 모임, 교과 간 융합 수업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는 전문적학습공동체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 쉬는 시간에 모여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 또한 자주 발견됩니다. 이를 통해 학교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재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직업에 대한 뚜렷한 목표 없이 교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에는 다른 직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더 교직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학생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이야기했던 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학생들의 기억 또한 즐겁고 보람찬 인상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며 교사로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극단적인 사례들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선생님으로 일하기 힘들다." 등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 교직이나 교육계에 종사하는 것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학생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때론 힘들 때도, 버릇없는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만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에너지 넘치고, 호기심 많고, 웃음이 가득한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직에서의 보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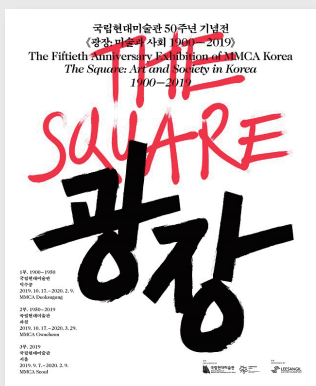
안수진 기자 dksinws61@korea.ac.kr



문화 탐방

지금 우리의 광장, 〈광장: 미술과 사회 1900-2019〉

이번 문화탐방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50주년 기획전시 '광장'을 소개합니다. 이번 전시는 시대별로 나누어 덕수궁관(1부, 1900~1950년), 과천관(2부, 한국전쟁~현재), 서울관(3부, 현재)에서 동시에 개최되고 있으며, 각 시대의 '광장'의 의미를 조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3부 전시는 '광장'이 지니는 현재적 의미를 동시대의 미술을 통해 이야기하는 전시입니다. 사진, 영상, 설치미술 등 다채로운 예술작품들로 구성된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현재의 '광장', 그 의미에 대해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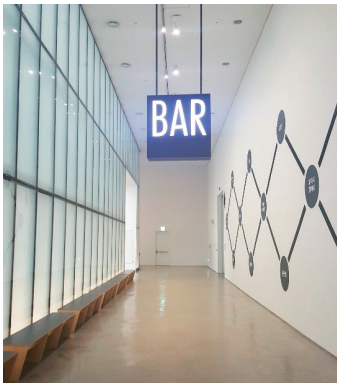


〈광장: 미술과 사회 1900-2019〉

- 전시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 전시기간: 2019.09.07.(토)~2020.02.09.(일)
- 관람시간: 일~목 오전 10시~오후 6시
금, 토 오전 10시~오후 9시
※ 금, 토 야간개장(오후 6시~9시) 무료관람
※ 1월 1일, 설날 휴관
- 관람요금: 4,000원
- 관람문의: 02-3701-9500

‘광장’이라는 단어는 이것이 지닌 공간적인 의미 외에, ‘소통의 장(場)’이라는 비유적 의미로도 많이 사용된다. 이처럼 광장은 집단적 연대감, 공동체의식과 같은 내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과연, 광장의 이러한 의미는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물음이 광장의 ‘현재적 의미’를 조명하고자 하는 3부 전시의 화두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급속도로 변해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의 광장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전시를 살펴보면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광장은 어떠한 의미로 비추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I 소서사적 공간



전시실로 들어가기 전, 왼쪽으로 눈을 돌리면 기다랗게 뻗은 복도 같은 공간 하나를 마주할 수 있다. 이 공간의 천장에는 ‘BAR’라는 네온 사인이 하나 걸려 있고, 한 쪽 면에는 벤치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 공간은 이번 전시의 ‘인트로’로서 홍승혜 작가가 자신이 생각하는 광장의 의미를 재해석해 놓은 공간이다. 작가는 이를 통해 광장이 지니는 일반적인 의미, 즉, 군중의 메시지 또는 거대한 담론이 오가는 공간의 의미로부터 벗어나 혼자 와서도 쉴 수 있고, 친구와 함께 담소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쉼터’의 의미로 광장을 표현해 내고 있다. 이는 대서사나 거대담론이 아닌 개인의 소서사적 이야기가 중시되는 현대 사회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개인의 이야기라도 그 가치가 폄하되지 않는다. 이처럼 현대의 광장은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의미로 그려지고 있다.

II 치열한 삶의 현장



전시실로 발걸음을 옮기면 한 평 남짓한 목조 건물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송성진 작가의 작품으로,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갯벌에 실제로 세워졌던 집이다. 작가는 방글라데시 난민촌의 난민들이 주변의 값싼 재료들로 임시 거처를 만드는 것을 본 후, 이로부터 영감을 받아 이 작품을 탄생시켰다. 이 작품 또한 값싼 재료, 버려지는 재료들로 만들어졌음은 물론이다. 한편, 우리는 이 작품이 ‘한 평’짜리 건물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작가는 왜 하필이면 ‘한 평’짜리 작품을 만들어 낸 것일까. 사람 한 명이 누우면 딱 찰 정도의 매우 협소한 공간 한 평. 일반적으로 주거지의 면적은 그곳에 사는 사람의 경제적 수준을 드러내는 지표라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한 평’이라는 이 공간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협소한 공간은 평평한 대지가 아닌 밀물과 썰물이 오고가는 갯벌 위에 세워짐으로써 수없이 부서지고 망가진다. 밀물과 썰물을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의 힘’이라고 볼 때, 이 한 평짜리 공간은 외부의 힘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각 개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 넘어진 집을 건져와 다시 세우는 것을 반복하는 작가의 행위는,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투쟁의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개인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송성진 작가에게 있어 이 시대의 광장은 마치 밀물과 썰물이 오고가는 듯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것 같다.

III 소통 그리고 단절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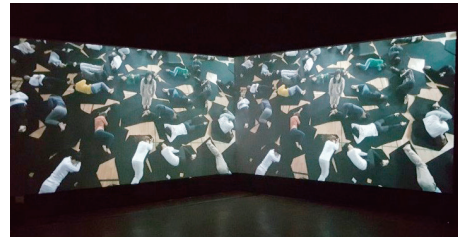
으로 시작하는 이 편지에는 정해진 시간에 창문 앞에 서서 10분 동안 창밖을 바라봐 달라는 요청이 적혀있다. 실제로 이 편지에 동의한 사람들은 유리창 앞에 서서 창문 밖의 카메라를 응시하고, 정확히 10분이 지난 후에는 조용히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특이한 것은 촬영을 허락한 사람들과 작가 사이에 어떠한 ‘접촉’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시실로 들어가기 전, 왼쪽으로 눈을 돌리면 기다랗게 뻗은 복도 같은 공간 하나를 마주할 수 있다. 이 공간의 천장에는 ‘BAR’라는 네온 사인이 하나 걸려 있고, 한 쪽 면에는 벤치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 공간은 이번 전시의 ‘인트로’로서 홍승혜 작가가 자신이 생각하는 광장의 의미를 재해석해 놓은 공간이다. 작가는 이를 통해 광장이 지니는 일반적인 의미, 즉, 군중의 메시지 또는 거대한 담론이 오가는 공간의 의미로부터 벗어나 혼자 와서도 쉴 수 있고, 친구와 함께 담소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쉼터’의 의미로 광장을 표현해 내고 있다. 이는 대서사나 거대담론이 아닌 개인의 소서사적 이야기가 중시되는 현대 사회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개인의 이야기라도 그 가치가 폄하되지 않는다. 이처럼 현대의 광장은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의미로 그려지고 있다.

물론 10분 동안 이어지는 촬영이기 때문에, 피사체와 작가는 서로를 바라봄으로써 일정 부분 ‘소통’을 이룩해 간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피사체와 작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남이 되어 버린다. 즉, 창문이라는 경계를 사이에 두고 서로는 그렇게 ‘단절’되는 것이다. 이들은 그렇게 ‘우리’로 거듭나지 못한 채 ‘타인’으로 남게 된다.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통한 후, 이내 단절되어 버리는 이중적 상황. 이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법을 보여주는 현대의 소통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결코 진정한 소통은 발생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작가는 표면적으로는 소통이 일어나는 듯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공간이 바로 오늘날의 광장임을 드러내고 있다.

IV 불안과 혼란의 공간

전시실을 옮겨가면 8분 정도의 짧은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체육관 바닥에 모여 새우잠을 자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의자에 앉아 이 상황을 관찰하고 있다. 이 영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우선 이 영상의 공간적 배경인 체육관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체육관은 평상시에는 체력 단련의 공간으로 사용되지만 유사시에는 임시 대피소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이 영상의 체육관은 후자의 경우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깨어 있는 몇 사람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들은 정장을 갖추어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보아 재난 상황을 수습해야 할 ‘관리자’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가만히 앉아 허공을 응시할 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채 결국에는 잠에 빠져들고 만다. 이들은 재난 상황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 시스템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체육관 바닥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의 밤은 결코 편안할 수 없다. 불안한 카메라 앵글과 웬지 모르게 음침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배경음악은 이러한 현대인의 불안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처럼 이 영상은 현대 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불안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두려움을 담아내고 있다. 즉, 현대의 광장은 때로는 개인에게 불안과 혼란의 공간으로 작용하게 된다.



V 다성적 공간



충을 달리하여 따로 마련된 전시실로 이동해 보도록 하자. 이곳에 들어선 독자는 굉장히 큰 파도 소리에 마치 바다에 온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이 파도 소리는 바로 ‘오션 드림’이라는 장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장치는 마치 쟁반 같은 것에 쇠구슬들을 담아 놓은 듯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각 쟁반마다 담겨있는 쇠구슬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다. 파도 소리는 이 서로 다른 크기의 쇠구슬들이 움직이면서 만들어진다. 크기가 다른 쇠구슬들이 각 개인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 쇠구슬들이 움직임으로써 형성되는 파도소리는 곧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개인이 모여, 각자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야말로 광장이 지니는 현재적인 의미라는 것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일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여러 작가가 미술로 그려 낸 현대의 ‘광장’,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광장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해석해 낸 작가도 있었고, 다소 부정적으로 표현해 낸 작가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가 ‘정답’이라기보다는 이러한 모든 양상들이 모두 모여 오늘날의 ‘광장’이 형성되었다는 말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광장’의 의미는 결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특히, 현대의 ‘광장’은 과거의 그것에 비해, 더 많은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광장을 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광장에 서느냐에 따라 그 의미 또한 변화될 것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각자에게 있어 광장은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어떠한 광장을 만들어 나가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